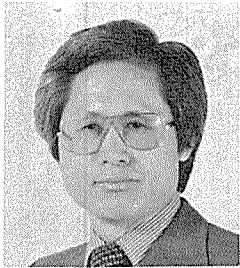


中東情勢와 OPEC



金 永 熙

(中央日報·論設委員)

지나친 石油依存度

中東에 砲聲이 울리면 世界經濟가 몸살을 앓는다. 서방세계의 거의 모든 가정의 부엌에서 자지러지는 재치기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이런 일을 73년 中東戰爭때 오일쇼크라는 이름으로 체험했다. 그 뒤에도 79년 이란의 회교혁명때 같은 일을 당했다.

오늘의 人類文明은 도대체가 石油依存도가 너무 높은게 탈이다. 81년 현재로 石油는 1차에너지供給의 50%를 차지한다. 그러니 중요성에서 石炭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源은 비교도 안된다.

설상가상으로 금싸라기같은 石油가 대부분 세계의 火藥庫라는 中東에 묻혀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이 리드하는 OPEC회원국들은 自由世界石油 매장량의 74%, 석유생산의 50%, 석유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OPEC의 영향력, 때로는 횡포가 클수 밖에 없는 일이다.

최근 몇년사이에 서방세계의 石油소비가 줄어 石油市場은 지금까지의 소위 파는쪽의 시장에서 사는 쪽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OPEC의 콧대가 살짝 꺾였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의 OPEC를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라고 부르기도한다. 날개없는 독수리라는 의미다.

사실 OPEC의 집안사정은 不和투성이다. 石油가 남아도니까 회원국들끼리 손발이 안맞는 것이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언제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또 한차례의 오일쇼크를 몰고 올런지 모른다.

그렇게 中東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다. 레바논 사태나 이란·이라크戰爭만해도 안정된 石油市場을 언제 교란 격동시킬런지 모른다.

砲煙에 휩싸인 페르샤灣

우선 이란·이라크戰의 砲煙에 휩싸인 페르샤灣의 사정부터 한번 들여다 보자.

지리적으로 이라크는 페르샤만에 겨우 발가락 하나정도 담그고 있는 꼴이다.

160마일 길이의 아랍水路는 이라크의 티크리스江과 유프라테스江이 합류하여 이루는 수렁투성이의 三角地帶를 거쳐서 페르샤만으로 흐른다.

이 水路를 따라서 內陸으로 30마일 올라가면 이란 最大의 정유시설이 있는 아바단에 당도한다.

거기서 다시 6마일 떨어진 곳에 이란의 주요 항구 호람샤르가 있다.

이라크 최대의 石油輸出港인 바스라까지는 호람샤르에서 30마일을 더 올라간다.

아랍水路는 페르샤灣연안의 石油의 젖줄이다.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시작한 원인의 하나도 바로 이 水路를 둘러싼 분쟁이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 두 나라의 정유시설과 석유수출시설이 몰려있는 바스라, 호람샤르, 카르그島가 싸움의 무대가 되고있다.

石油과 관련하여 세계의 시선이 이란·이라크戰에 쏠린 것도 우리가 아니다.

非共產世界の 石油供給量の 40%를 담당하는 지역, 80척정도의 유조선들이 20분에 한척 비율로 하루 평균 2천만배럴 가까운 原油를 실어나르던 곳이 페르샤灣이다.

韓國으로 가는 석유의 거의 全量, 日本90, 유럽65, 美國 30%가 페르샤만 연안의 산유국에서 나는 현실이니, 페르샤灣의 安危가 세계경제의 安危를 좌우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世界經濟의 目錄 / 호르무즈海峽

80년 1월 美國의 카터대통령이 年頭敎書에서 소위 카터독트린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美國은 페르샤灣을 지배하려는 어떤 外部세력의 企圖든지간에 그것을 미국의 死活이 걸린 이익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 할 것이다. 美國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런 침범을 격퇴할 것이다.』

카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만약 호르무즈海峽이 봉쇄되기라도 하면 세계경제는 파탄을 맞을 것이고, 그것은 50년전의 대공황 보다도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79년의 이란 革命과 아프가니스탄 事態로 中東 지역에서 美國의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위축 되었다. 거기다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40만 대군으로 페르샤灣의 경찰역을 맡고 있던 이란이 팔레비王朝의 붕괴로 군사적인 弱小國家로 전락함으로써 灣岸國家들의 자체방위능력, 특히 호르무즈海峽 보호능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美國의 保護能力弱화

지난 9월 18일 이스라엘의 비호를 받는 레바논 右派民兵隊가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피난민들을 대량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잃은 것이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가 美國이다.

美國은 이란혁명과 아프가니스탄사태로 떨어진 위신을 레바논 事態仲裁로 상당히 회복을 하고 있었다. 특히 9월 1일 레이건이 내어놓은 中東平和案은 아랍국가들간에도 광범위한 호응을 얻어 항구적인 中東平和를 위한 협상의 바탕

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런 기대가 팔레스타인피난민학살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 美國이 이스라엘에게 히스테리를 부릴만도 한 것이다.

9월 23일로서 3년째로 접어드는 이란·이라크戰爭은 이란이 혁명의 혼란속에서 페르샤灣의 경찰역을 포기하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大統領이 페르샤灣의 強者로 부상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후세인의 계산은 誤算이었던 것 같다. 速戰速決로 끝낼 수 있으리라던 전쟁은 지구전 상태로 들어가 이란에게 戰列을 정비할 시간여유를 주었다.

그래서 이란은 지난 5월부터 승리작전이라는 것을 개시하여 80년 10월 이라크에게 빼앗겼던 호람샤르를 되찾고, 이라크軍을 이란 領土에서 격퇴하는데 성공했다.

이란-이라크戰의 내막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이라크가 體戰을 제의하기에 이르렀지만, 호메이니의 이란은 후세인 政權의 붕괴를 목표로 逆攻勢를 취하면서 體戰提議를 거부하고 있다.

이란·이라크戰爭은 OPEC에도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뒤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전쟁은 OPEC에 심각한 內紛을 촉발하고, 아랍세계를 분열시켜 놓았다. 아랍·이스라엘紛爭에서는 아랍의 主將格인 시리아가 이란·이라크전쟁에서는 아랍陣營에 등을 돌리고 非아랍국가인 이란을 지원한다.

그것은 이라크와 시리아간의 오랜 不和때문인데 지금 예상대로 이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 페르샤灣의 사정은 전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이란은 후세인政府를 쓰러뜨리고, 이라크에 親이란 政權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라크를 前進基地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같은 半封建的인 產油王國 또는 土侯國에 共和혁명을 수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中東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

나의 不安戰線이 레바논이다. 이 나라는 中東의 거울이다. 中東의 얼굴이 만신창이면 레바논의 모습은 흉하다.

지난 6월 6일 이스라엘軍이 南部레바논을 侵攻하면서 일어난 中東危機는 뜻밖에도 8월30일까지의 PLO의 레바논철수를 실현시켜 中東平和의 전망이 밝아지는가 싶었다.

두말할 것 없이 PLO는 어디서나 「뜨거운 감자」다. PLO계열라는 레바논南部의 基地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은 언제나 레바논을 상대로 報復攻撃을 가했다. 뿐만아니라 레바논은 회교도와 기독교의 팽팽한 對立속에 제 구실을 하는 中央政府도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레바논 안에 있는 40여개의 武装勢力 중에서 PLO는 최대의 집단으로 레바논에서는 「나라안의 나라」같은 存在로 굳렘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레바논에 親이스라엘政府를 세우기를 원했다. 이집트와 单独講和를 체결한 지금 레바논을 衝星国같이 만들어 놓으면 西·南·北部戰線은 완전히 안정이 되어 한편으로는 고립된 시리아를 상대로 유리한 高地에서 평화협상을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저항을 받음이 없이 요르단 江西岸과 가자地區를 항구적으로 이스라엘化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다.

PLO 抹殺政策

PLO는 레바논에 근거를 두고 최근 몇년사이에는 국제사회에서 外交的인 성과를 크게 거두어 PLO의 국제적인 지위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PLO말살, 레바논으로부터 축출시킬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6월3일 런던에서 이스라엘 大使가 피격당한 사건이 일어나자 사흘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侵略했다.

이스라엘이 이 때를 PLO말살의 好機로 생각한 동기는 세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

① 이란·이라크戰爭에서 이란이 승리할런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란을 支援하는 시리아의 입장은 결정적으로 강화되고, 시리아, PLO에 대한 이란의 支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란·이라크전쟁이 끝나기 전에 先手

를 써야 한다. 특히 시리아의 이란 支援 때문에 아랍世界가 분열된 사태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② PLO를 지원하면 레바논에 아랍 平和軍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시리아의 국내정세가 不安하다. 地方都市에서 反政府테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사정아래서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레바논侵攻에 全面戰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③ 이스라엘의 국내사정이 밖에서의 군사행동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베진政權은 130%의 인플레이션, 높은 失業率, 높아가는 反戰무드로 궁지에 몰렸다. 국민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국민을 군사행동으로 결속시킬 필요가 있었다.

袖手傍觀한 아랍圈

베진首相의 계산은 잘 들어 맞았다. 무엇 보다도 PLO를 지원하는 소련, 아랍국가들, 시리아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侵攻과 PLO의 괴멸을 방관만 한 것이다. 그런 나라들은 입으로만 요란하게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그러나 규탄성명이 아무리 語調가 강해도 重武装한 4,500명의 이스라엘軍隊의 진격을 막지는 못했다.

이스라엘의 작전은 민간인 사망자 10,000명, 60만명의 피난민을 내고, PLO의 레바논 徹取로 막을 내렸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PLO戰士들은 3개월간의 저항끝에 美国이 제시한 調整안을 수락하고 빨빨히 헤어져 레바논을 떠난 것이다. 이스라엘軍隊는 레바논에 그대로 남은채.

美国, 이스라엘, 그리고 中東의 모든 당사국들은 PLO의 어이없는 붕괴를 中東平和의 실마리로 잡기를 바랐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9월 1일 레이건의 새 中東平和案과 9월 9일 아랍首腦들이 모로코의 페즈(Fez)에서 발표한 「페즈宣言」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中東平和案

레이건의 平和案은 지금까지의 美国의 입장

에서 상당히 벗어나 아랍쪽으로 접근한 것이다. 물론 요르단江 西岸과 가자地區에 팔레스타인 獨立國家를 세워야 한다는 아랍主張과는 거리가 있지만

- ① 兩地區를 요르단政府와 聯合하고,
- ② 예루살렘 分割을 반대하고,
- ③ 兩地區에 이스라엘 定着村확대를 금지 한다는 내용은 아랍측의 호응을 받았다.

페즈宣言은 더욱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그것은 아랍국가들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生存權을 인정한 것이다. 이 선언을 발표한 아랍首腦會議에는 PLO의 아라파트를 위시하여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아같은 강경파수뇌들까지 참가하여 아랍·이스라엘 紛爭의 말썽의 근원인 이스라엘 生存權公認이 사실상 아랍世界 全体에 의하여 공식선언으로 인정이 된 것이다.

아랍首腦들은 또 레이건 平和案을 토대로 이스라엘, 美國등과 팔레스타인 自治協商을 벌일 대표 委員會까지 구성하는데도 성공했다.

이와 같이 PLO없는 中東에서는 平和의 전망이 장마철의 무지개 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역사의 진행에는 언제나 아이러니가 동행한다.

9월 18일, 전세계에 충격波를 던진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피난민촌에서 일어난 대학살 사건은 순식간에 中東천지에 먹구름을 물고 왔다. 먹구름속에 레이건 平和案도 페즈宣言도 당분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규탄이다. 복수의 여신이 먹구름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팔레스타인피난민들, 그들은 아랍각국으로 뿔뿔히 흩어져간 PLO戰士들의 아내요, 아들이요, 부모요, 동생들이다. 그들이 떠난뒤 自衛能力이 없는 피난민캠프에 레바논 右派民兵隊員들이 밀고 들어가 수천명을 학살했다.

Toille民兵隊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제 中東사태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平和努力的 후퇴

이스라엘의 만행을 저지하지 못한 美國은 아

랍세계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중재역을 맡을 수 있는 위치의 美國이 위신과 신뢰를 잃어가지고는 平和의 전망을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PLO戰士들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날개없는 독수리지만, 대부분의 아랍產油國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産油시설을 위협할 수 있다.

PLO의 괴멸을 방관한 아랍국가들은 피난민 학살로 터진 분노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

베긴首相은 나라안팎에서 辭任壓力을 받고 있다.

PLO철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上陸했던 美 伊 등 外國軍이 다시 돌아왔다.

사태가 破局으로 달리는 것을 방지하는 길은 베긴首相과 샤론國防相이 물러나고 이스라엘軍隊가 레바논에서 철수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온건파인 바이즈만 前國防相 같은 사람이 政權을 인수하여 팔레스타인 自治協商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의 死活을 좌우하는 中東의 油田地帶에 또 한번 보복테러의 불기둥이 솟을 것이다.

分散된 PLO戰士들을 받아들인 아랍 국가들은 PLO계릴라들의 파괴행동을 막아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PLO계릴라는 언제나 産油와 精油設施의 파괴를 마지막 카드로 쥐고 있다.

OPEC의 內紛化

中東의 産油國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란·이라크戰爭과 레바논事態중에서 後者는 石油에의 파급효과가 아직 미지수다. 팔레스타인피난민 대량학살에 대한 PLO와 아랍국가들의 対応策의 윤곽이 아직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前者-이란·이라크戰-은 OPEC에 內紛의 불을 질러 놓고 있다. 그것은 이란이 戰費조달을 위해서 석유생산량을 늘이고 석유값을 내린데서 발단이 된 것이다.

이란·이라크戰爭은 두 나라간의 영토분쟁과 종교적인 不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같은 産油國들을 대신해서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일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호메이니의 이란이 이들 半封建的인 나라들에게 이란類의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이라크는 代理戰爭을 맡고 나선 것이다.

그 댓가로 이라크는 지금까지 무려 240억 달러가 넘는 戰費支援을 받았다. 그리고 이란이 休戰조건으로 이라크에 전쟁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그 액수는 1,500억달러나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상당액을 이란을 지원하는 산유국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회교세력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自力으로 회교혁명에 성공했다. 거기다가 尙이라크戰에까지 이겨 두개의 꽃다발을 안게 된다면 페르샤灣岸의 산유국들이 받는 충격과 불안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 나라들은 호메이니가 붕괴시킨 팔레비時代와 유사한 국내정세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불안을 더욱 加重되는 것이다.

아랍王制의 불안감

다시 말하면, ①王制를 유지하기 위한 權力의 中央集中, ②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外國에 依存하고, 外國을 이용하여 致富한 支配계급과 빈민층의 貧富差, ③비밀경찰조직에 의한 정치적인 불만의 억압, ④높은 文盲率, ⑤시어派 회교도의 存在등이 혁명전의 이란과 오늘의 灣岸國家들이 안고 있는 유사점인 것이다.

따라서 灣岸國家들이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란을 경계하고 견제하려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7월 9일 OPEC임시총회가 석유가격과 석유생산량을 논의할 때도 예외없이 「이란명령」이 등장하여 회의를 사실상 결렬로 막을 내리게 만들었다.

임시총회를 결렬시킨 결정적인 争点은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세나라가 나라별 石油生産 割当量을 훨씬 초과하여 석유를 생산하는 문제였다.

OPEC는 3월 20일 石油價格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22年史上 처음으로 OPEC회원국 전체의

하루 산유량을 1,750만배럴로 묶는 上限線을 정했다. 아라비안 라이트의 기준油價를 배럴당 34달러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한선과 그에 따른 나라별 할당량의 덕택이었다고 하겠다.

1,750만배럴의 産出근거는 금년 제3/4分期의 OPEC석유에 대한 전체수요를 1,950만 배럴로 보고, 자유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石油在庫의 하루 방출량 200만배럴을 除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해진 1,750만배럴을 나라별로 할당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715만, 이란120만, 리비아75만, 나이지리아 130만배럴 등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란은 戰費조달이 급하고 혁명과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의 재건이 급하다.

産油量上限線 合意의 붕괴

그래서 이란은 지난 6월 현재 하루 220만 배럴의 石油를 생산하여 OPEC의 기준유가보다 낮은 값으로 수출하고 있다. OPEC 합의는 깨진 것이다.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도 이란을 따라서 할당량을 무시하고, 각각 100만과 15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반대로 이란의 交戰相對國인 이라크는 할당량은 120만배럴인데 실제생산량은 85만배럴, 그중 수출은 60만배럴 밖에 안된다. 그것으로는 한달에 10억달러씩 드는 戰費조달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혁명수출의 前哨戰같은 이란·이라크戰爭을 치르는 이란이 OPEC合意를 깨고 산유량을 100만배럴이나 올려잡은 것은 OPEC의 결속을 위해서나 灣岸君主首長國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리비아의 경우도 아랍強硬派로 사사건건 灣岸의 온건과국가들과는 충돌하고 있다.

OPEC의 盟主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中間派가 이란立場支持로 돌아 이란의 하루産油量을 250만배럴로 늘려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困境에 처한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 자신은 할당된 생산량이 715만 배럴인데 실제 생산량은 685만 배럴이었다. 가격과와 중간과의 회원국들도 外貨事情이 좋고 절대생산량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700만 배럴 가까이 石油을 생산하는데 반발을 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OPEC회원국 전체의 올해 약 500억 달러의 석유수입부족을 겪을 것 같다.

그들이 지금까지 축적된 달러를 까먹지 않으려면 -표현을 바꾸어서 OPEC회원국들이 국가 예산에서 필요로 하는만큼의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하루 산유량을 2,260만 배럴로 잡아야 한다. OPEC上限線 1,750만 배럴보다 500만 배럴이 많은 양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그 정도로 산유량을 늘리면 油價引下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거기 대해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량을 늘리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란의 戰費조달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감정대립은 계속 平行線만 긋고 있다.

요컨대 價格카르텔로 출범한 OPEC가 油價 컨트롤 능력을 잃고 있는 것은 이 지구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란은 82년 들어서 벌써 세 차례나 油價를

배럴당 4 달러씩이나 내렸다.

이런 현상은 즉각 現物市場에 반영되어 아라비안라이트가 지난 3년간의 최저수준인 29.75 내지 29.95달러까지 내려갔다. 기준가격보다 4 달러이상 싼 값이다. 2차석유파동 직후인 79년말 기준가격이 24달러일때 現物市場價格이 43달러이던 사정과 비교하면 今昔之感이 있다.

危機에 직면한 OPEC

OPEC는 이제 富의 代名詞가 아니다. 81년 제2/4分期중 13억 달러이던 對外負債가 제3/4분기에는 24억 달러로 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財政赤字에 허덕이고, 쿠웨이트는 많은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레바논事態로 빚어진 中東평화의 전망은 오리무중이다. 이란·이라크전쟁은 이라크와 灣岸 온건파에 불리하게 끝날 공산이 크다. PLO는 팔레스타인 피난민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油田地帶를 위협할런지도 모른다.

이래서 OPEC가 부리던 한때의 횡포는 추억으로만 남고 세계의 석유사정은 產油國들에게 어렵게만 보인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정치가 얽혀 든 것이다. 그러나 이걸 석유라는 政治武器를 남용한 산유국들의 自業自得이다. *

• 石油用語解説 •

常 庄 蒸 溜

原油를 常庄下에서 加熱, 蒸溜하여 가스, 揮發油溜分, 灯油溜分, 輕油溜分 및 殘油로 分別하는 것을 말한다.

蒸溜란 比重점이 다른 炭化水素의 혼합물인 原油를 그 比重점差를 이용하여 単体 또는 일정한 比重점범위의 溜分으로 分別하는 것인데, 그 蒸溜操作을 加庄 또는 減庄 등 압력의 조정을 하지 않은 常庄에서 하는 장치를 常庄蒸溜裝置라고 부른다.

석유정제의 제 1 단계 장치로 그 장치의 処理能力으로 그 정유공장의 정제규모를 나타내는 등 대표적인

장치이다. 또 常庄蒸溜는 가벼운 윗쪽부터 하나 하나 分別되기 때문에 토폭(Topping)이라고도 불리우며, 常庄蒸溜裝置는 토퍼(Topper)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常庄蒸溜로 分別되는 各溜分の 比重점범위는 석유제품의 수급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輕質揮發油溜分 30~100℃
- ▲重質揮發油溜分 90~200℃
- ▲灯油溜分 150~280℃
- ▲輕油溜分 250~350℃
- ▲殘油 300~320℃ 이상.